

국립고궁박물관-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특별전

# 긴 여정 마친 '환수 문화재' 한자리에

### 7일~9월 25일, 40여점 공개 유출과정부터 환수까지 조명

'문인석' (文人石),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 '백자동채통형병', '독서당계회도'... 위에 열거한 문화재는 국내에 돌아온 문화재들로, 문화적 가치가 크고 역사성을 두루 갖춘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외에서 환수된 우리 문화재는 모두 780여 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기증 680점을 비롯해 매입 103점, 영구 대여 1점 등이 있다. 나라 밖의 문화재가 환수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유출 경위와 문화재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무엇보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대의에도 부합된다.

환수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을 개최한다.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을 주제로 7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는 모두 40여 점이 공개된다. 그 가운데 6점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2019년 반환된 '문인석' 한 쌍은 조선시대 사대부 묘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석상 가운데 하나는 입을 다물고 다른 하나는 입을 벌린 채 쌍을 이룬 구조로 눈길을 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문인석은 지난 1983년 독일인이 서울 인사동 골동품상에서 매입해 독일로 건너갔다. 이후 로텐바움박물관이 1987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텐바움박물관은 소장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로부터 독일 반입의 불법성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특별전 언론 공개행사에서 관계자들이 2019년 독일에서 돌아온 문인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라 연방정부, 주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반환했다.

'나전 매화, 새, 대나무 상자'는 제작 수준이 높고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조선 후기 제작된 나전 상자로 연구 등의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번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나라 밖 문화재'는 유출된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일제가 유출했지만 2006년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환수한 국보 '오대산고본 조선왕조실록' 등을 볼 수 있다. 보물인 '국새 황제지보', '국새 유서지보', '국새 준명지보'는 한국전쟁 때 도난당했다가 미국과 공조로 2014년 정상회담을 통해 찾았다.

2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환수와 관련한 다양한 방법을 조명하는 코너다. 조선후기 보병들

이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면피갑'은 지난 2018년 국내로 돌아왔다. 독일 상트오틸리엔수도원이 조건 없이 기증한 사례로 고궁박물관이 보존처리 해 이번에 공개된다. 특히 면피갑의 안과 밖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복제품도 함께 전시돼 비교가 가능하다.

3부 '현지에서'에서는 비록 환수되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그간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소재 문화재의 보존처리 과정과 해외에 우리의 문화재를 알리는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그동안의 조사 연구 성과를 담은 책자도 비치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국 투어 콘서트 앞둔 송골매.

/연합뉴스

## 전설의 록밴드 '송골매' 그 때 그 시절로

### 40년만에 전국투어 콘서트...부산·대구·광주·인천 순회

"1990년부터 라디오 DJ를 하면서 음악을 직접 하는 것보다 음악을 소개하는 게 내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송골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하자고 (구창모와)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배철수)

198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록 밴드 송골매의 배철수와 구창모가 약 40년 만에 광주를 비롯, 전국 투어 콘서트로 다시 돌아온다.

송골매는 9월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인천을 순회하며 힘찬 날갯짓을 나선다. 이들은 내년에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에서도 공연을 계획 중이다. 이번 투어는 송골매의 마지막 콘서트라 될 공산이 크다.

송골매의 리더 배철수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전국투어 콘서트 '열망' 제작발표회에서 "젊은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타임슬립을 하는 느낌으로 할 것"이라며 "편곡은 100% 오리지널 그대로 한다"고 말했다.

보컬 구창모는 "20대 때 가졌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지금 이 시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골매는 1979년 록 밴드 활주로 출신 배철수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3년 뒤인 1982년 흥익대 록 밴드 블랙테트라와 구창모와 김정선을 영입하며 밴드의 전성기를 맞았다. 송골매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빛깔', '모여라', '모두 다 사랑하리' 등의 히트곡을 배출하며 1980년대를 대표하는 밴드로 인기를 누렸다. 1982년 발표된 2집 타이틀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당시 KBS '가요톱텐'에서 5주간 1위를 차지하는 등 히트를 했다.

송골매는 1990년 9집을 마지막으로 긴 휴식에 들어갔다. 리더 배철수는 같은 해 진행을 맡은 MBC FM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진행하며 국민 DJ로 사랑받았다.

이번 전국투어는 이로부터 32년, 배철수와 구창모라는 '투툼' 체계가 갖춰진 지 40년 만의 콘서트로 의미가 크다. 청바지와 장발로 상징되던 송골매

의 지향 정신 혹은 일탈도 다시 소환될 전망이다.

배철수는 "(1980년대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경직됐고 힘든 시기였다"며 "송골매라는 팀은 기성 가요계와는 달리 무대 위에 청바지를 입고 올라온 최초의 밴드였다. 저 이전의 선배들은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댔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자유롭게 노래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대리만족을 한 게 아닐까 한다"며 "약간의 일탈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구창모 역시 "그때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시절"이라며 "청바지는 젊은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무대복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청바지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송국에 청바지를 입고 출연했다가 프로그램을 무시한다며 야단맞은 적도 있었다"며 "그래도 우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배철수의 장발과 청바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활약하던 시대에도 록은 주류 장르가 아니었지만, 4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록의 불모지로 불린다. 배철수는 관련 질문에 "문화는 흘러가는 강 같아서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 댄만 쌓지 않으면 된다"며 "문화는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서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송골매 재결합을 기념해 엑소의 수호와 그룹사운드 잔디베가 각각 '모두 다 사랑하리'와 '세상만사'를 리메이크해 발표한다.

배철수는 "세상 모든 일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위험하기는 하다"는 조건을 달고서 "이번 공연까지 마치면 더는 음악은 하지 않으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은퇴 예고'를 했다.

"배철수가 1979년 제가 머물던 설악산 암자로 다섯 시간 걸려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음악을 같이 하자'고 첫 마디를 꺼냈죠. 숙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음악을 하면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구창모)

/연합뉴스

## 청소년 대상 'ACC TEEN 예비전문인 교육'

## '장애인 아트페어' 조직위 발대식

### 공연기획자·사운드 아티스트

나만의 공연을 기획해보는 '공연기획자', 음향 예술을 꿈꾸며 작품을 만들어 보는 '사운드 아티스트'.

여름 방학동안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치는 'ACC TEEN 예비전문인 교육' (예비전문인 교육)이 그것. 예비전문인 교육은 전담 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공연기획자'와 '사운드 아티스트' 등 2개 과정으로 구성했다.

먼저 공연기획자 과정은 오는 21~24일 ACC 문화교육동에서 열리며 공연 기획자와 공연 이

야기를 나누고 관련 진로를 체험한다. 무대장치 등 여러 요소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28~29일 ACT 스튜디오 3에서 운영하는 사운드 아티스트 과정은 음향 예술 작품을 만들며 직군을 탐색해 보는 과정으로 실천 활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ACC는 지난 6월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우수 사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무료이며 프로그램당 선착순 15명 선발. 17일 밤 11시까지 ACC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2 광주 장애인 아트페어(에이블 아트 위크)'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5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진행됐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는 '2022 광주 장애인 아트페어'는 한국화와 서양화, 조소, 공예, 사진 등 작가 70명이 참여하며 작품 판매와 작품 현장 제작 등도 펼쳐진다.

조직위원회는 공동 위원장은 윤택림 전 전남대학교병원장과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우재길 화백, 이명자 갤러리S 관장, 허진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문경양 광주장애인미술협회장과 정진삼 장애인문화협회장 등 9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